

國際地理學聯合과 國際地理學會議

李 燦

序 言	I.G.U.와 韓國
第一期 國際地理學會議	第二十一回 國際地理學會議
第二期 國際地理學會議	要約과 提言

序 言

西歐地理學의 韓國에의 導入은 實學派의 學者들과 直接 宣教師들을 통해서 비교적 일찌기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大部分은 啓蒙的인 것과 敎訓的인 面이었고 科學的인 地理學의 導入은 實질적으로 1945年 以後의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學問的인 地理學會의 發足도 解放直後의 일이었다. 大韓地理學會의 前身인 朝鮮地理學會의 創立은 1945年 9月에 20餘名의 發起人으로 되었으나 學會誌가 나온 것이 1963年이고 보던 實質的인 學問的 活動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國內的인 學術 活動의 未熟에도 불구하고 1960年에 國際地理學聯合(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에 加入하였다는 것은 學問的 國際的인 交流를 할 수 있는 正常 通路를 열었다는 點에서 意義가 컸다고 생각된다.

이 小考는 主로 IGU 出版物과 第21次 I.G.U. 國際地理學會議 參席經驗을 土臺로 歷史的인 背景과 韓國과 의 關係를 考察한 것으로 國際地理學聯合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위한 것이다.

第一期 國際地理學會議 (1871~1913)

國際地理學會議의 起源은 벨쑤의 有名한 16世紀의 地圖學者인 Gerhard Mercator(1512~94)와 Abraham Ortelius(1527~98)의 出生都市인 Rupelmode 와 Anvers 에 그들의 銅像을 세우고 그 除幕式에 地理學에 關係깊은 地理學者, 旅行者, 偉大한 世界航路의 開拓者, 國際的인 通商을 수립한 商人들을 한 자리에 모아 地理學에 關한 토론을 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 날 짜는 원래 1870年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普魯시아와 프랑스의 戰爭 때문에 그 다음해인 1871年에 가졌으며 그 正式 名稱은 "地理學·宇宙誌 및 商業學會議(Cong-

ress des Sciences Geographiques, Cosmographiques et Commerciales)였으나 보통 地理學會議라고 불렀다.

第一期 國際地理學會議의 開催地와 年度		
第 1 回	Anvers, Belgium	1871
第 2 回	Paris, France	1875
第 3 回	Venezia, Italia	1881
第 4 回	Paris, France	1889
第 5 回	Bern, Swiss	1891
第 6 回	London, U.K.	1895
第 7 回	Berlin, Deutschland	1899
第 8 回	Washington, D.C., Philadelphia, New York, Chicago, St. Louis, U.S.A.	1904
第 9 回	Geneva, Swiss	1908
第10回	Roma, Italia	1913

위 表와 같이 第一期 會議은 美國을 除外하고는 모두 유럽에서 열렸으며 프랑스에서 두 번, 스위스에서 두 번 열었고 미국에서는 한 곳에서 會議를 하지 않고 Washington, D.C.에서 시작해서 Philadelphia, New York, Chicago 를 거쳐 最終會議를 St. Louis 에서 열었다.

第一期 會議의 性格은 그 正式名稱이 가리키듯이 現在 우리들이 생각하는 地理學會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即 第一期의 會議에서는 學問的인 論文發表나 討論보다도 未開地의 탐험과 旅行, 그리고 通商을 위한 어떤 地方의 情報 등이 重要한 問題들이었다. Anvers 에서 열린 第1回 會議를 통해서 그 內容을 살펴보면 이 會議는 1) 地理學部門, 2) 宇宙學, 航海 및 商業部門, 3) 人種學部門의 三部門으로 나누어졌으며 討議問題는 會議前에 이미 決定되어 있었다. 그 問題는 87問으로 되어 있었으며, 地圖學이 22, 航海商業이 36, 人種學이 3問 등으로 되어 있다. 그 問題의 實例를 들어보면 "무슨 投影法이 地圖帖에 가장 적합한가

?", "Mercator의 어떤 原本地圖가 남아 있는가?", "大西洋에 關해서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兩極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方法은?", "America 地峽에 가장 좋은 운하 개설 장소는?", "現在의 人種分布와 어떤 人種이 다른 人種의 자리를 뺏는 경향," 등이다. 이밖에 地理教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科學的인 地理學의 問題에 對한 國際的인 理念의 交流보다도 探險問題, 旅行, 地圖作成 問題, 運河問題 등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이 會議는 各國의 이른바 地理學會(Geographical Society)가 主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Society는 그 構成要員이 地理專門家(Professional geographer)들보다도 探險家, 旅行家, 商人, 軍人들이 主가 되어 있는 會이고 Paris 地理學會(Société de Géographie de Paris, 1882), Berlin 地理學會(Die Gesellschaft für Erdkunde zu Berlin, 1828), 英國王立地理學會(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London, 1852) New York 美國地理學會(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of New York, 1852) 등이 그 보기이다. 위의 地理學會들은 第二次 大戰 이후 그 性格이 學問的인 方向으로 轉換되었으나 아직도 創立 當時의 廣範圍한 關心을 完全히 버리지 않고 있어 第二期 會議의 主體가 되는 地理學協會(Geographical Association)와는 지금도 그 關心의 差異가 많다.

第二期 國際地理學會議 (1925~

第一次 世界大戰 이후 國際相互協調的인 科學的 研究의 필요성에서 1919년에 國際學術院(International Research Council)이 Brussels에서 조직되었고 그 산하에 國際地理學聯合(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이 새로 發足を 보았다. 1924년에 I.G.U.는 國際地理學會議에 關해서 仔細한 規程을 만들었으며 그 主要事項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된다.

- 1) 모든 國際地理學 會議는 I.G.U.의 主管으로 개최된다.
- 2) 會員國은 각각 國內委員會(National Committee)를 構成한다.
- 3) 各專門分科委員會를 조직하고 各科委員은 國際地理學會議에서 그 研究結果를 보고한다.

새로운 조직 아래 열린 첫 會議는 1928년에 Cairo에서 第11回 國際地理學會議을 열었다. 그후 戰時를 빼고는 3年 또는 4年の 間격을 두고 別表와 같이 개최되었다.

第二期 會議는 주로 各國의 地理專門家들에 의해서 開催되었다는 점이 第一期 會議와 다른 점이다. 따라

第11回	Cairo, U.A.R.	1925
第12回	Cambridge, U.K.	1928
第13回	Paris, France	1931
第14回	Warsaw, Poland	1934
第15回	Amsterdam, Netherland	1938
第16回	Lisbon, Portugal	1949
第17回	Washington, D.C. U.S.A	1952
第18回	Rio de Janeiro, Brazil	1956
第19回	Stockholm, Sweden	1960
第20回	London, U.K.	1964
第21回	New Delhi, India	1968
第22回	Montreal, Canada(豫定)	1972

서 第一期 會議에서 主動이 되었던 各國 地理學會(Geographical Society) 대신 各國의 地理學協會(Geographical Association)가 主動이 되었다. 그 內容에 있어서도 論文發表와 各分科委員會의 研究報告, 그리고 各種 Symposium에 主力을 두고 있다.

會議는 I.G.U. 會長 지휘 아래 開催國 委員會를 구성하고 그 밑에 다시 特別 組織委員會를 만들고 會議進行의 모든 準備를 책임진다. 本會議는 開催國의 公的 歡迎會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本會議에서 委員의 改選과 論文發表會가 專攻別로 시작된다. 이어서 各分科委員會의 研究報告가 있다. 本會議는 學術發表에 결쳐 各國의 地圖 및 地理關係 器具 및 資料의 展示가 있다. 이 地圖展示에는 여러나라들이 경쟁적으로 自己나라의 새로운 地圖 및 地圖冊의 紹介에 힘쓰고 있다. 또하나의 重要한 行事는 野外踏查旅行이다. Rio de Janeiro 大會에서의 아마존 踏查, 今般 New Delhi 大會에서의 Nepal 踏查 등은 그 보기들이며 參加者中에는 研究發表보다도 踏查 旅行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적지않다. 그뿐만 아니라 國際地理學會議에 나왔던 길에 그 地域에 對한 평소의 研究中 未備한 점을 補充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國際地理學會議는 學術的인 情報를 交換하는 데도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開催國이 責任지고 發行하는 發表論文 要約集, 各種踏查旅行에 必要한 印刷物, 各種 地圖가 있고 이 時期를 利用해서 各國 I.G.U. 委員會에서는 自己 나라의 地理關係 資料 및 情報를 外國에 소개하고 있다. I.G.U. 定期刊行物로 年 2回의 News Letter가 1950年 이래 發行되고 있어 定期的으로 News를 傳達하고 있다. 또하나 重要한 I.G.U. 出版物은 UNESCO와 프랑스地理學者協會와 共同으로 내는 國際地理學參考文獻集(Bibliographie Geographique Interna-

tionale)을 年刊으로 편집하고 있다. 이 文獻集은 1891年 La Blache가 시작한 것으로 독일의 Geographisch-Jahrbuch (1866~)와 미국의 Current Geographical Publications(1925~)와 같이 地理學文獻集으로서 가장 권위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I.G.U. 와 韓國

韓國地理學者들이 I.G.U.에 關해 關心을 갖게 된 것은 1957年 8월에 東京에서 열린 I.G.U. 地域會議(Regional Conference)에 參席한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東京會議는 韓國地理學者들이 參席한 最初의 I.G.U. 關係會議였고 그곳에서 當時의 I.G.U. 事務局長인 Hans Boesch 教授와도 만나 韓國의 I.G.U. 加入問題를 私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Boesch 教授를 韓國에 招請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東京에서 열린 I.G.U. 地域會議 후에 1960年에 Stockholm에서 열린 第十九回 國際地理學會議를 계기로 韓國의 加入을 서두르게 되었다. I.G.U. 加入을 위한 韓國 I.G.U. National Committee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中心으로 이야기가 進行되었다. 그중 문제가 된 것은 I.G.U.에 加入하려면 National Committee (全國委員會 또는 國內委員會)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國內委員會는 地理學會의 聯合體라야 한다는 해석이었다. 이러한 見解로 만들어진 것이 1959年 2月 10日 서울中學校에서 「全國內委員會인 韓國地理聯合會를 結成」¹⁾하였다. 그리고 會長에 당시의 大韓地理學會 會長인 李鳳秀 教授, 事務局長에 金庚星 教授를 選出하였다. 이것은 National Committee 라는 英文 해석을 學會의 聯合體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온 것 같다. 실제로 I.G.U.에 加入하기 위한 條件으로는 國內地理學者를 代表할 수 있는 委員會가 必要한 것이지만 반드시 地理學會가 두 개 이상 있는 國家에 限해서 加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實證으로 加入된 外國의 例를 들어보면 가장 보편적인 것은 全國에 걸친 地理學會 即 英國의 Royal Geographical Society 같은 學會가 加入된 것이고 둘째는 美國과 日本같이 學術院이 加入團體가 된 것과, 셋째로는 全國적인 學會가 없는 경우에 大學의 地理學部 또는 大學 自體, 文教部, 또는 地理關係를 다루는 政府機關 등이 加入團體가 되어 있다. 현재까지 I.G.U. 加入團體名中에 地理學會 聯合會로서 加入된 것은 우리 韓國뿐이다.

韓國은 1960年의 Stockholm 大會에서 正式會員으로 加入되었으며 當時 韓國을 代表해서 애써주신 분들은

事務局長職을 맡고 있던 金庚星 教授와 洪慶姬 教授였었고 UNESCO의 國際理解教育을 담당하고 地理教育分科의 UNESCO 代表로 參席한 金鍊觀氏 등이었다. 1964年에 London에서 열린 第20回 國際地理學會議에는 韓國代表는 한 사람도 參席못하였고 다만 UNESCO 代表인 金鍊觀氏가 韓國사람으로 유일한 參加會員이었다. 1968年 12월에 New Delhi에서 열린 第21回 國際地理學會議에는 多幸히 現在 Malaya 大學에 客員教授로 있는 李廷冕 教授, 梨花女大의 金蓮玉 教授와 筆者가 參席할 수 있어 體面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다.

第21回 New Delhi 國際地理學會議

I.G.U. 歷史上 최초로 Asia에서 열렸던 國際地理學會議였으며 68個國에서 約 1200名이 參席했고 主催國의 參席者를 뺀 外國에서 온 會員數만도 約 650名으로 參席者數로 보아 成功的인 회의였다고 볼 수 있다. 各 國별 참석자 수를 보면 美國(150명), 소련(67명), 영국(63名), 프랑스(60名), 멕시코(55名), 캐나다(48名) 이탈리아(38名), 동독(35名), 日本(32名)의 順序로서 그 나라의 經濟力에 比例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本會議는 1968年 12月 1日부터 8日까지의 9日間 New Delhi에서 열렸으며 本會議의 前과 後에 各種 Symposium과 踏查旅行이 있었다. 따라서 本會議와 그 前後를 모두 합치면 約 1個月餘의 會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全部를 參席할 수는 없으며 自己의 專攻分野와 興味에 따라서 選擇하게 된다. 그러나 大部分의 會員이 本會議에 參席하고 會議前 또는 後의 Symposium과 踏查旅行을 各各 하나씩은 참석하고 있다. 筆者는 本會議와 Madras에서 개최한 地理教育 Symposium(12月 9日—12日), Damodar Valley 답사여행(12月 14日—18日)에 參席하였기에 그 일부를 기술하여 New Delhi 國際地理學회의 1면을 소개하려고 한다.

本會議의 論文發表는 地形學, 氣候學, 生物地理學, 綜合自然地理學, 經濟地理學, 人口 및 聚落地理學, 歷史 및 政治地理學, 地誌 및 地域計劃, 地圖學과 寫眞地理學(Photogeography)의 9分科로 나누어서 約 1000餘편의 論文이 發表되었다. 1부의 發表會場을 除外하면 대부분이 한산하고 參加會員들의 大部分이 論文發表 그 自體보다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같은 專攻學者들끼리 情報의 交換과 事後의 書信連絡에 의한 접촉 등에 더 관심이 큰 것으로 보였다.

本會議의 또하나 重要的 部分은 各分科委員會의 研究報告이며 그 分科는 다음과 같았다.

1) 金庚星, 國際地理學聯合總會 參席報告, 地理學, 第1號 (1963), p.119. 실지의 正式名稱은 「韓國地理學聯合會」임.

常設委員會(Standing Commissions)

1. 世界土地利用 調查委員會(1949年 設置)
2. 乾燥地帶 委員會(1952)
3. 地理教育 委員會(1952)
4. 濕潤熱帶 委員會(1956)
5. 國定地圖冊 委員會(1956)
一般委員會(Ordinary Commission)
6. 醫療地理 委員會(1949)
7. 周邊水河地形學 委員會(1949)
8. 海岸地形學 委員會(1952)
9. 斜面發達 委員會(1952)
10. 應用地形學 委員會(1956)
11. 經濟的 地域分化方法 委員會(1960)
12. 世界人口의 地理學 및 地圖學 委員會(1964)
13. 應用地理 委員會(1964)
14. 航空寫真判讀 委員會(1964)
15. 數量的方法 委員會(1964)
16. 農業類型分類 委員會(1964)
17. 水理 周期(decade) 委員會(1964)

Madras에서 개최된 地理教育 Symposium은 英國, 프랑스, 캐나다, 도이칠란드,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日本, 케냐, 인디아 등 10餘個國代表가 參席하였으며 小集團인 관계로 여러모로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歡迎行事, 초대 등에 大部分의 時間을 빼앗기고 보니 정말로 무릎을 맞대고 토론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發表論文中 특히 興味를 끈 것은 英國의 G.M. Hickman 教授의 1~8學年까지의 概念中心 地理教育에 關한 研究였고 그외는 大部分이 各國의 地理教育의 現況報告에 關한 것이었다. 그중 특히 英國의 地理教育에 關한 報告와 參考文獻, 그리고 西獨의 地理教育에 關한 報告는 도움을 주는 點이 많았다.

Damodar 流域의 工業地域의 踏査는 重工業偏重의 五個年計劃을 하고 있는 印度의 工業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印度의 시골을 볼수 있었다는 點에서 수확이 컸다. 12月 13日에 Kharagpur를 떠나 Jamshedpur-Chandrapur-Konar Dam-Tilaiya Dam-Sindri-Drugapur를 거쳐 Calcutta에 12月 18日 午後에 到着하는 長距離 버스旅行이었다. 鐵鑛과 石炭이 結合된 工業地域이니만치 製鐵工業의 發達は 놀랄 정도로 잘 되어 있으나 其他 工業面은 뒤떨어진 感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農民들의 營農方法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原始的인 것을 發見했다. 쉬운 예를 들면 아직도 벼의 脫穀을 一般的으로 家畜에게 밟히는 方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踏査旅行에 대한

參加者의 不滿은 적절한 案內圖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고 5만분의 地形圖는 印度의 法으로 個人이 所持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地理學者들에게 地圖 없는 野外 踏査는 참을 수 없는 苦役이었다.

要約과 提言

國際地理學會議는 크게 第一次 世界大戰前과 그 以後로 2分되며 前者는 探險, 旅行, 航路開拓 등 一般的인 關心事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그 主催도 各國의 探險家, 商人, 軍人들이 中心이 되는 地理學會(geographical society)가 맡아보았다. 그러나 二期의 會議는 學問的인 面이 強調되고 專門的인 地理學者들이 中心이 되었다는 點이 第一期의 會議와 다른 點이고 그 主催도 各國의 專門地理學者들이 모인 地理學者協會(geographical association)가 中心이 되었다. 모두 戰爭 또는 特別한 일이 없으면 3年 또는 4年마다 國際地理學會議를 열었고 最近에는 그 中間에 地域會議를 열기도 하였다. 韓國은 1960年에 加入하였으나 아직 積極的인 參與를 하고 있지 못하고 各分科 委員會의 研究와도 連絡을 못 맺고 있다. 그리고 會費조차도 제때 納付 못해온 것이 事實이다. 元來 小數의 代表가 參席되고 또 미리부터 計劃을 못한 關係로 研究發表, 分科委員會에서의 活動도 그 일부에 限定되고 말았다. 그리고 신포츨 參加關係로 언제나 國際地理學會議의 前後에 있는 I.C.A. (國際地圖學協會)의 總會에는 韓國은 한名의 代表도 參席 못하였다. 그리고 今般 大會에 參加한 3名도 모두 外國에 나가 있거나 또는 外國에 研究次 나가 있다가 歸國途中에 參加한 것이지 韓國에서 正式으로 代表 資格으로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 多幸하게도 今年부터는 科學技術處의 원조를 받게 되어 經濟的인 面에서는 많이 改善될 것으로 추측되나 韓國地理學者들의 活動에의 參與는 아직도 많은 努力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大 教育大學院)

參 考 文 獻

- Close, Charles,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Geographical Journal*, Royal Geographical Society, Vol. 72(1928), pp.100~116.
- de Martonne, Emmanuel "Brief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I.G.U. News Letter*, Vol. 1 (1950), No.2. pp.3-5.
- 李 燦, 國際地理學會議와 地理學의 動向, 教育, 서울大學校 師範大學教育會, 第七號 (1957), pp. 110-124
- Abstracts of Papers*, 21st International Congress, 1968.